일본 고분자 학회 제 41 회 고분자 토론회를 다녀와서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 동안 일본 Morioka현에 소재한 Iwate 대학교에서 개최된 제 41회 고분자 토론회에 건국대학교의 허정림 교수와 전남대학교의 김진봉 교수와 함께 참석하였다.

고분자 합성, 고분자 반응, 기능성 고분자, 생체 고분자, 고성능 고분자, 고분자 구조, 고분자 용액 물성, 고분자 dynamics와 rheology, 고분자 고체 물성, 표면 및 계면물성, 고분자 공업과 기술 등 11개의 일반 주제와 고분자 합성의 신전개, 고분자 분해, 기능성 폴리다당 및 핵산, Electronics용 고분자 재료, Photonics재료, 가교 고분자 및 Gel, Drug Delivery System 및 고분자 분광학 등 11개의 특정 주제로 각 주제별로 발표된 1029건의 구두 발표 논문과 104건의 Poster 발표 논문들을 소화하기 위해 전부 22개의 발표장을 돌아다니기에 정신이 없었다. IUPAC MACRO '92에서 발표된 논문수가 881편을 감안한다면 그 규모가 엄청난데 대해 놀랐다.

토론회가 개최된 3일 동안 2,000여명의 일본 고분자 학자들이 참석하였다. 올해의 경제사정이 좋지 못하고 Morioka의 위치가 너무 멀어 예년에 비해 훨씬 적게 참석했다는(보통 3,000~4,000명) 일본 고분자 학회 사무장 Takahiko씨의 설명이 아니더라도 우리들에게는 그저 경탄할만 한 것이었다.

Macromolecules을 비롯하여 세계의 저명한 고분자 관련 Journal에 게재되는 논문들의 절반이 일본인에 의한 것임을 감안한다면, 우리들이 참석한 고분자 토론회는 정말 유명한 일본 학자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한 논문당 발표 15분에 토의 10분, 총 25분의 발표시간이 잡혀 있는데 10분간의 열띤 질의 응답이 무척 인상적이었고, 좌장의 역할이 돋보였다. 시간을 알리는 종은 보조학생이 쳤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좌장이 시간을 알리는 종을 치랴 질의 하랴 바쁜데 이는 한번 생각해볼 문제이다.

일본어로 발표된 논문들을 이해하기엔 쉽지 않았지만, 일본의 현재 연구 동향들을 한 자리에서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28일 저녁엔 젊은 학자들 만이 간단한 음식과 함께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Mixer에 참석하여 일본의 젊은 학자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일본 고분자 학회 Abe 회장을 비롯하여 학회 임원들이 참석하여 젊은 신진 학자들을 격려해 주고, 약 두시간 동안 각 지방별로 최근 연구 내용을 소개하는 분위기가 퍽이나 인상적이었다. 우리나라도 학회 본부 차원에서 춘·추계 논문 발표회 시에 이런 젊은 학자들을 위한 교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젊은 학자들이 미래의 일본을 이끌어 갈테지 하는 생각에 부러운 생각이 앞섰다.

29일 저녁엔 reception에 참석하여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 학자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리셉션이 끝나고 Takahiko씨와 동경 농공대의 S. Miyata교수 및 경도대학의 Y. Imanishi 교수는 우리들을 가라오케로 모시는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훌륭한 논문들을 발표하고 전세계에서 초청 강연이 쇄도하여 Jet Professor라는 별명이 붙었다면서 서로를 칭찬하면서도 우리보다 더 패티킴의 '이별'을 멋드러지게 잘 부르는 두 일본 교수들을 보며 참 멋지다는 생각을 했다.

30일, 오후 2시 25분에 있은 김진봉 박사의 발표를 끝으로 일본 고분자 학회 토론회 참석을 마감하였다. 토론회 기간중에 짬을 내어 구경한 Iwate산의 고이와이 목장의 상큼한 공기는 멋진 추억거리가 될 것이다.

한일 고분자 학회간의 신진 학자 교류 계획의 일환으로 이번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준 한일 양 학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다. 특히,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하나라도 우리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준 일본 고분자 학회 사무장 Takahiko씨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다.

(부산대학교 고분자 공학과 하창식)